

## 제 3자 도덕적 면허 효과: 범법자 소속 집단에 대한 지각이 관찰자의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조 병 철

김 혜 숙<sup>†</sup>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범법자의 소속 집단에 대한 지각(즉, 사회경제적 지위 및 따뜻함)에 따른 관찰자의 처벌판단에 있어 제3자 도덕적 면허효과(즉, 행위자들의 현재의 나쁜 행동을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 등에 비추어 우호적으로 해석하여 허용하거나 혹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행위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통해 허용하는 효과)가 범죄의 명료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 대학생 실험참여자들은 조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고vs저vs통제)가 다른 범법자의 범죄행위(명백vs모호) 시나리오를 읽은 다음,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판단을 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실험참여자들은 명백한 범죄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지위정보가 없는(통제) 조건에서보다 높은 지위 범법자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하였다. 모호한 범죄의 경우, 실험참여자들은 낮은 지위 범법자에 대해서보다 통제조건이나 높은 지위 범법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하였다. 또한 낮은 지위 범법자(vs. 높은 지위)에 대한 약한 처벌은 명백한 범죄 상황에서만 동정심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였다. 연구 2에서는 범법자의 소속 집단의 유능성(즉, 지위) 외에 따뜻함 정보를 추가하여 범죄의 명료성에 따른 관찰자들의 처벌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또한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탐색하였다. 연구 2에서 실험참여자들은 조건에 따라 유능성과 따뜻함 수준이 다른 대상의 범죄행위 시나리오를 읽고 처벌판단을 하였다. 연구 2의 결과, 범죄의 명료성과 유능성 차원 그리고 범죄의 명료성과 따뜻함 차원 각각의 2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명백한 범죄의 경우, 관찰자들은 무능하게 지각되는 사람보다 유능하게 지각되는 사람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무능한 사람(vs. 유능한 사람)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동정심을 통해 발생하였다(연구 1 결과 반복지지). 행위자가 모호한 범법 행위를 하였을 때는 관찰자들은 차감게 지각되는 사람보다 따뜻하게 지각되는 사람에게 더 관대한 처벌을 하였다. 이때 발생한 관대한 처벌은 관찰자들이 따뜻한 사람의 모호한 범법 행동을 우호적으로 해석함(즉, 범죄행위가 아닌 것처럼 지각)으로써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범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사회 집단에 따른 고정관념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의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어 : 사회경제적 지위, 도덕적 면허, 처벌판단, 유능성과 따뜻함, 범죄의 명료성

\* 이 논문의 일부는 조병철의 아주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

† 교신저자: 김혜숙,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E-mail: hsk@ajou.ac.kr

일반적으로 사회에 이롭고 바람직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수용되지만, 바람직하지 못하고 남에게 해로운 행동은 사회적으로 거부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규칙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Polman, Pettiit, & Wiesenfeld, 2013). 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확실한 증거가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 평소에 행실이 좋았던 연예인들에 대한 옹호 여론이 형성이 되다가 확실한 증언이나 증거로 인해 연예인의 범죄행위가 확실해졌을 때 여론은 급격히 부정적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한편, 분유를 훔치는 아기엄마와 같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비난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동정심을 보이며 죄를 경감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지위에 따라 다른 처벌 판단을 할까? 본 연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범법자의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에 관한 과거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경향이 있고, 이러한 호의가 이후에 그들의 범죄를 덜 부적절한 것처럼 지각하도록 만든다(Hollander, 1958). 하지만 최근 연구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행동에 대한 결과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 더 가혹하게 판단한다고 제한한다(Fragale, Rosen, Xu, & Merideth, 2009).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규범위반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타인들에게 동정, 연민, 관대함을 유발한다(Gans, 1972; Gino & Pierce, 2009; Weiner, Osborne, & Rudolph, 2011). 관찰자들은 낮은 지위를 가진 타인들을 판단할 때, “그들이 충분히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준을 관대하게 한다(Polman 등, 2013). 반면, 낮은 지위는 사회적 거부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소수집단, 여성 혹은 노숙자와 같은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존중 받지 못하고, 낙인찍히며, 부정적으로 고정관념화 된다(Harris & Fiske, 2006; Link & Phelan, 2001; Major & O'Brien, 2005; Steele, Spencer, & Aronson, 2002; Zick, Pettigrew & Wagner, 2008). 범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른 관찰자들의 일관되지 않은 도덕적 판단의 결과들은 관찰자들의 공정세상 믿음 및 공정세상 기대, 범죄의 전형성, 고의성 귀인 혹은 범죄의 명료성(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 등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박희찬, 김혜숙 2010; 최승혁, 허태균 2012; Fragale 등, 2009; Polman 등, 2013). 최승혁과 허태균(2012)은 한국 대학생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정세상 믿음 및 공정세상 기대가 관찰자들의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높은 공정세상기대, 즉 당위적으로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고 바라는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낮은 대상이 그러했을 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희찬과 김혜숙(2010)은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한 결과(연구 1), 관찰자들은 살인, 폭력, 절도, 조직폭력범죄를 지위가 낮은 사람(vs. 높은 사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vs. 높은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vs. 부자 혹은 중산층)에 있어 더 전형적이라고 인식하였지만, 사기, 횡령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vs. 낮은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vs. 낮은 사람) 그리고 부자 혹은 중산층(vs. 가난한 사람)에서 더 전형적인 범죄라고 인식하였다. Fragale 등 (2009)은 범법자의 지위가 범법자의 행동에 대한 관찰자들의 귀인과 처벌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관찰자들은 동일한 범법행동을 저질렀을 때,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 더 고의적이라고 지각하였으며, 더 높은 처벌 판단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처벌판단에 있어 대상의 지위효과는 대상의 행동에 대한 관찰자들의 고의성 귀인에 의해 매개되었다. Polman 등(2013)의 연구는 범법자의 지위에 따른 관찰자들의 처벌판단이 범죄의 명료성(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이들의 연구 2에서 참가자들은 지위가 높은 행위자가 명백한 도덕적 위반 행동을 했을 경우 지위가 낮은 행위자에게보다 더 엄한 처벌 판단을 하였다. 이들의 연구 3에서는 관찰자들은 행위자들이 범죄로 보기에 모호한 행위를 했을 때, 통제조건(지위정보가 없음)에 비해 지위가 높거나 낮은 대상에게 더 약한 처벌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 1의 직접 선행 연구이므로 이 연구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기술하겠다.

이와 같이 공정세상 기대, 범죄의 전형성, 고의성 귀인 혹은 범죄의 명료성(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 등의 요인들이 앞서 설명한 범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도덕적 판단 연구들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관찰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공정세상기대, 범죄의 전형성 혹은 고의성 귀인과 같은 요인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범죄 행위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고정관념의 도메인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ske, Cuddy, Glick과 Xu (2002)가 제안한 집단고정관념 내용 모델은 집단고정관념의 내용이 유능성과 따뜻함의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중 집단의 유능성은 사회에서의 집단의 지위에 의해 영향 받고 따뜻함은 사회적 자원들에 대한 내집단과의 경쟁의 지각을 통해 영향 받는다고 보았다. 즉, 지위가 높은 집단은 능력이 높다고 지각되나 지위가 낮은 집단 구성원들은 유능하지 않다고 지각된다는 것이다. 또한 내집단에게 해가되지 않는 집단(예를 들어, 내집단원 혹은 영세민)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지각하지만 내집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예를 들어, 복지

수혜자)에 대해서는 차가운 사람들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이 관찰자의 도덕적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낮은 타인이나 집단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을 고려해 보는 것은 관찰자들의 도덕적 판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범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의 명료성(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이 상호작용하여 관찰자들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처음 알아보았던 Polman 등(2013)의 연구가 한국 사회 맥락에서 반복 검증 되는지 확인하고(연구 1), 이 연구를 확장하여 관찰자의 처벌판단에 대한 상충되는 과거 연구들을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범법자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 지각의 효과를 검토할 것이다(연구 2). 종합하면, 본 연구는 범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즉, 유능성/능력)와 따뜻함 지각 및 범죄의 명료성(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관찰자들의 도덕적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 범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사람들이 타인의 의문스러운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Polman 등, 2013). 지위는 사회적으로 할당된 가치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사람들은 타인들이 기꺼이 부여하는 정도의 지위만을 소유할 수 있다(Fragale 등, 2009). 하지만 관찰자들은 종종 개인의 지위에 대한 평가를 전체로든 부분으로든 지위 특성을 나타내는,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개인의 특성에 근거한다(Berger, Cohen, & Zelditch, 1972; Berger, Fisek, Norman, & Zelditch, 1977; Webster & Driskell, 1978; Webster & Foschi, 1988; Webster & Hysom, 1998). 즉, 관찰자들은 한 개인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 결정하기 위한 단서들

로 할당된 특징(인종, 성), 성취된 특징(교육, 직업) 및 관찰된 행동(말하는 방식, 의복 스타일)을 사용한다. 이러한 특성과 행동 단서들은 사람들이 이전에 알지 못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이자 결정요인이다(Webster & Driskell, 1978).

일단 지위가 결정되면, 개인의 지위 수준은 관찰자들이 개인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지위는 개인의 성격(Conway, Pizzamiglio, & Mount, 1996; Fiske 등, 2002; Sande, Ellard, & Ross, 1986), 정서적 반응(Tiedens, Ellsworth, & Mesquita, 2000) 및 기대되는 과제 수행(Ridgeway, 1987)에 관한 추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는 관찰자들이 개인의 범법행위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Fragale 등, 2009).

#### 도덕적 자기 면허(Moral Self Licensing) VS. 제 3자 도덕적 면허(Third Party Moral Licensing)

과거의 도덕적 행동 이력으로 인해 자신을 비도덕적이라 느끼거나 타인에게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일 염려를 하지 않고도 기꺼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때, 도덕적 자기-면허(Moral self-licensing)를 부여 받았다고 한다(Monin & Miller, 2001).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도덕적 행동을 떠올릴 수 있을 때, 자신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자격(moral credentials)을 가진다고 지각할 수 있다. 즉, 이전에 이미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선행을 쌓아 왔으므로 현재 조금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Monin과 Miller(2001)는 사람들은 과거의 선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자존감(self-regard)이 안전하다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도덕적 자기-면허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연구자들은 도덕적 면허 효과(혹은 도덕적 자격이라 불리는)의 수많은 사례들을 발견해왔다. 예를 들어, 노골적 편견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것(Monin & Miller,

2001), 흑인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Effron, Cameron, & Monin, 2009) 혹은 소수집단 구성원과의 긍정적 경험을 글로 쓰는 것(Bradley-Geist, King, Skorinko, Hebl, & McKenna, 2010)은 이 후에 참가자들이 편견으로 보일 수 있는 견해를 표현 할 수 있는 면허를 제공받았다고 느끼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Effron 등(2009)은 흑인 정치인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집단의 참가자들이,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은 집단 참가자들과 비교해서, 이후에 백인이 흑인보다 경찰직에 더 적합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흑인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도덕적 자격을 확립시키고, 편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Jordan, Mullen과 Murnighan(2011)은 자신의 과거의 도덕적 행동을 회상한 사람들이 비도덕적 행동을 회상한 사람들 보다 친사회적 의도가 더 낮았으며,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도덕적 면허(Moral licensing)의 강력한 효과는 도덕적 자격이 쉽고 자연스럽게 축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도덕적 자격은 실제 사건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타인들이 수행한 도덕적 행동을 통해 대리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Kouchaki, 2011). 실제 행동 혹은 상상한 행동에 근거하는 상관없이 도덕적 자격은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가상적 면허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에 면허를 줄 수도 있다(Brown et al., 2011; Khan & Dhar, 2006; Mazar & Zhong, 2010).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도덕적 자기-면허에 초점을 두었고, 타인들의 범법행동을 용서하는 제 3자 도덕적 면허 효과(Third Party Moral Licensing Effect)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관찰자들은 때때로 과거에 도덕적 행동을 했던 행위자들이 저지른 나쁜 행동을 허용하거나 용서한다(Effron & Monin, 2010). 예를 들어, Nisan과 Horenczyk(1990)의 연구에서 이스라엘

중학생들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 관한 글을 읽었다. 몇몇 아이들은 평소에 품행이 바른 것으로 묘사되었고, 다른 아이들은 평소에 품행이 바르지 않다고 묘사되었다. 참가자들은 “품행이 바르지 않다고 묘사된 나쁜” 아이들 보다 “품행이 바르다고 묘사된 좋은” 아이들의 도둑질을 더 허용했다. 또한 Krumm과 Corning(2008)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게이 커플에게 은행 대출을 거부하는 모호한 행동을 한 사람에 관한 글을 읽었다. 이 행동은 차별적 혹은 비차별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성애자 참가자들은 대출 거부 이전에 게이 권리 퍼레이드에 참석한 적이 있었던 사람을 퍼레이드에 참석한 적이 없었던 사람 보다 덜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들은 나쁜 행동에 대한 관찰자들의 반응이 나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의 이전 행동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도덕적 면허(Moral Licensing)를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 도덕적 자격(Moral Credentials)과 도덕적 신용(Moral Credit)

이전 연구는 도덕적 면허를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Merritt, Effron, & Monin, 2010; Miller & Effron, 2010)-도덕적 자격 지각 혹은 도덕적 신용 부여. 도덕적 면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두 모델 중 도덕적 자격(Moral credentials) 모델은 행위자의 과거의 선한 행동이 이후 모호한 행동에 대한 관찰자의 해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즉, 과거 선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의문스러운 이후의 행동을 관찰자들로 하여금 나쁜 행동이 아닌 것처럼 지각(해석)하도록 만들어 행동에 면허를 부여한다(Effron & Monin, 2010).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행위자의 행동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Polman 등, 2013).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보다 도덕적 자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한 가지 긍정적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많은 긍정적 특질들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후광 효과(halo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Polman 등, 2013).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후광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그 행위가 명백한 범법행위로 지각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정도일 때에만, 관찰자들은 그 행위를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우호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도덕적으로 의문스러운 행동이 모호하지 않고 확실히 드러나 재해석될 수 없을 때 관찰자들의 반응은 특히 부정적일 수도 있다(Polman 등, 2013).

도덕적 면허를 부여하는 과정에 대한 또 다른 모델인 도덕적 신용(Moral credit) 모델은 관찰자들은 행위자들이 도덕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본다. 선한 행동은 도덕 계좌에서 플러스인 도덕적 신용(credit)을 나타내지만, 나쁜 행동은 마이너스로 도덕적 부채(moral debits)를 나타낸다(Effron & Monin, 2010). 이 모델에서는 행위자들이 나쁜 행동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한 도덕적 신용을 축적했다면, 도덕적 부채가 도덕적 신용을 넘지 않는 선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Nisan, 1991; Zhong, Liljenquist, & Cain, 2009). 즉, 범법행위와 동일한 크기의 도덕적 신용을 부여하여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도덕적 신용은 범죄 자체에 대한 관찰자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나쁜 행동을 허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Polman 등, 2013). 이러한 방식으로 도덕적 신용은 행위자들이 덜 비난 받는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Effron & Monin, 2010). 도덕적 자격(Moral credentials)이 행동을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렌즈를 제공한다면, 도덕적 신용(Moral credit)은 나쁜 행동에 대한 권한을 구입할 수 있는 예금과 같다(Effron & Monin, 2010).

Polman 등(2013)은 도덕적 신용의 다른 형태인 동정심 신용(sympathy credit)이 도덕적 신용처럼 범법행동에 대한 상쇄자본을 제공한다고 제안했다. 행위자가 동정심 신용을 받으면, 타인으로부터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Schmitt & Clark,

2006). 동정심을 주는 것은 “정의의 저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전략이다(Weiner, Osborne & Rudolph, 2011). 과거 연구(Fiske 등, 2002)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더 많은 동정심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동정심 신용은 보통 낮은 지위 쪽으로 향한다(Polman 등, 2013). 실제로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동정심을 이끌어 내며, 동정심을 주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있다(Eaton & Struthers, 2006; Eisenberg 등, 1989; Takaku, 2001).

Polman 등(2013)의 연구는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대한 관찰자들의 처벌판단을 검토하여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제 3자 도덕적 면허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을 검토했다. 또한 이 효과가 서로 다른 기제를 통해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도덕적 자격(우호적 해석) 혹은 도덕적 신용(동정심). 우선, 그들의 연구 2에서는 행위자의 지위와 도덕적 위반 행동 유형(명백한 vs. 모호한 도덕적 위반)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명백한 도덕적 위반조건(누군가가 5명의 백인과 2명의 흑인 직장 후보자를 인터뷰하고 백인들만 고용한 상황에서 평소 그가 흑인을 싫어했다는 내용의 메일이 발견)에서 참가자들(즉, 관찰자)은 지위가 높은 행위자에게 지위가 낮은 행위자에게보다 더 높은 처벌을 부여하였다. 연구 3에서는 실제 범법행위(절도) 맥락에서 실험을 하였는데, 관찰자들은 모호한 범법행동(행위자가 테이블위에 있던 돈을 가져가는 시나리오로, 이것은 돈을 훔치려는 행동 혹은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챙겨두는 행동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한 모호함을 가진다)을 한 지위가 높거나 낮은 대상에게 통제조건(지위정보가 없음)에 비해 더 관대한 처벌을 부여하였다. 즉, 통제조건에 비해 낮은 지위 또는 높은 지위 조건 모두에게 더 많은 도덕적 면허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 연구자들은 높은 지위 범법자와 낮은 지위 범법자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가 서로 다른 기제

를 통해 주어지는 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예상한 바대로 모호한 범죄 행위의 경우 지위가 높은 범법자(vs. 통제)의 범법행위는 도덕적 자격(우호적 해석)을 통해, 지위가 낮은 범법자(vs. 통제)에게는 도덕적 신용(동정심)을 통해 도덕적 면허가 부여되었다.

범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관찰자의 처벌판단에 관해 알아보았던 국내의 연구(최승혁, 허태균, 2012) 결과를 살펴보면, 범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고 vs 저)와 판단자(즉, 관찰자)의 공정세상기대가 상호작용하여 관찰자들의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반드시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고 바라는 공정세상기대가 높은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낮은 대상에게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처벌판단에 관한 한국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모호한 범법행위 상황에서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을 알아본 국내 연구 또한 연구자가 알기로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모호한 범죄 상황에서는 고지위의 사람들에게 도덕적 면허를 부여하여 더 낮은 처벌을 책정했던 미국 연구에서와 달리 한국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부유층이나 고지위층의 사람들에 대해 더욱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이 매우 강하다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7%로 OECD 42개 국 중 39위인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식의 사법판단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오현철, 2015).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약한 처벌을 받는 반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한국 사회 맥락에서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을 추가 검토하여 문화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범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또는 유능성)를 지각하는 것이 관찰자의 처벌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법자의 지위가 제 3자 도덕적 면허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인 Polman 등(2013)의 연구가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서도 반복 검증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연구 1). 또한 이 연구결과를 더 확장시켜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에 관한 과거의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추가 검토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범법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 지각이 관찰자의 처벌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하고자 하였다(연구 2).

## 연구 1

연구 1에서는 Polman 등(2013)의 연구가 한국 사회 맥락에서 반복 검증되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범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의 명료성(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이 도덕적 면허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범법자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 효과가 서로 다른 기제를 통해 발생하는 지를 반복 검증하였다. Polman 등(2013)의 연구 2에서, 참가자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명백한 도덕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지위가 낮은 사람이 동일 행동을 했을 때에 비해 더 엄한 처벌하였다. 또한 이들의 연구 3에서 참가자들이 행위자가 모호한 범법행위(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통제조건(지위정보가

없음)에 비해 지위가 높거나 낮은 범법자에게 더 관대한 처벌을 하였다. 이때 지위가 높은 범법자에게는 행동에 대한 우호적 해석(도덕적 자격)을 함으로써 도덕적 면허가 주어졌고, 지위가 낮은 범법자에게는 동정심(도덕적 신용)을 느낌으로써 도덕적 면허가 부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범죄성이 명백하여 행동에 대한 우호적 해석의 여지가 없을 때, 관찰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에게 지위가 낮은 행위자에 비해 더 가혹한 처벌을 부여할 것이며, 또한 지위가 낮은 행위자(vs. 지위가 높은 행위자)에 대한 이러한 관대한 처벌은 동정심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한국 참여자들(즉, 관찰자들)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혹은 낮은 행위자가 모호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통제조건의 경우보다 관대한 처벌을 할 것이지만, 지위가 높은 경우는 우호적 해석을 통해, 그리고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동정심을 통해 도덕적 면허가 부여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가 범죄성이 모호한 행동을 했을 때조차 엄한 처벌을 함으로써 외국선행연구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범죄성이 모호한 상황에서의 처벌판단에 관한 국내선행연구가 없을뿐더러 본 연구 1의 주된 목적이 외국 선행 연구가 한국 사회적 맥락에서도 반복적으로 검증되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가설을 그대로 따랐다.

본 연구는 Polman 등(2013)의 연구와 한 가지 점에서 다르다. 즉 그들 연구의 지위조작은 직업특성(예, 고지위:재활거주지 책임자, 저지위: 건물 수위)을 가지고 이루어 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범법자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정보를 직접 조작하여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둘 다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설계 및 가설

본 연구의 설계는 3 (사회경제적 지위: 높은 지위 vs 낮은 지위 vs 통제) × 2 (범죄의 명료성: 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동) 참가자간 2원 설계이며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판단이 주요 종속변인이다.

**가설 1-1 명백한 범법행위의 경우,**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행위자에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와 통제조건(지위정보 없음)에 비해 더 관대한 처벌판단(도덕적 면허 효과)을 할 것이다.

**가설 1-2 명백한 범법행위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관대한 처벌은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동정심(도덕적 신용)을 통해 발생할 것이다(매개가설).

**가설 2-1 모호한 범법행위의 경우,** 참가자들은 명백한 범죄 조건과 달리 통제조건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와 낮은 행위자 모두에게 관대한 처벌판단을 할 것이다.

**가설 2-2 모호한 범법행위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와 낮은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 효과는 서로 다른 기제를 통해 발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vs. 통제)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 효과는 범법행위에 대한 우호적 해석(도덕적 자격)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행위자(vs. 통제)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 효과는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동정심(도덕적 신용)을 통해 발

생할 것이다(매개가설).

방 법

참가자

00대 구글 실험참여 모집시스템(prefapsy)을 이용하여 심리학 교양 수업을 듣는 대학생 실험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총 190명의 참여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18세에서 26세까지로 평균(SD) 21.6(1.12)세였으며, 본 실험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실험참여점수와 2000원 상당의 커피쿠폰이 주어졌다. 이 중 불성실 응답 3명, 사전조사 참여자 3명을 제외하였고, 조작점검으로 지위조작 실패 2명, 범죄의 명료성 조작 실패 25명(명백한 조건 5명, 모호한 조건 20명)을 제외한 총 157명(남자 82명, 여자 75명)의 참가자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1을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은 범죄 시나리오 상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사회경제적 지위 고 조건 26명, 저 조건 28명, 통제 조건 26명), 또는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사회경제적 지위 고 조건 26명, 저 조건 26명, 통제 조건 25명)에 무선 할당되었다.

실험절차

참여자들은 1~6명 단위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이 실험실로 들어와 칸막이가 설치된 각 책상에 앉으면, 실험자는 참가자들에

표 1. 연구 1 가설 정리(범죄의 명료성 × 사회·경제적 지위)

	명백한 범죄			모호한 범죄		
	높은 지위	낮은 지위	통제	높은 지위	낮은 지위	통제
도덕적 면허효과	면허(X)	면허(O)	-	면허(O)	면허(O)	-
기제(매개)	-	동정심 (도덕적 신용)	-	우호적해석 (도덕적 자격)	동정심 (도덕적 신용)	-

계 명목상 본 연구는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과정을 알아보는 연구’라고 소개하고 실험 참여시 주의 및 지시사항을 설명했다(예, “본 실험의 모든 응답은 정답이 없으니 본인이 생각하는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시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 하십시오”). 설명이 끝난 뒤, 범죄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질문 항목들이 들어간 질문지를 한 부씩 나누어 주었다. 참가자들은 성별과 연령에 응답하였다. 이후 명백한 또는 모호한 범법행위 상황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높은지위 vs 낮은지위 vs 통제)를 조작한 시나리오를 읽고 조작점점 문항과 종속변인 및 매개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실험이 종료되고 참가자들에게 사후 설명을 하였다.

#### 범죄 시나리오

본 연구의 범죄 시나리오는 Polman 등(2013)의 연구 3에서 쓰인 절도 범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게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범죄 시나리오는 누군가 의자 위에 두고 간 지갑을 다른 누군가가 손에 들고 있는 행동을 서술하였고, 이 행동의 범죄성의 정도를 명백하게 또는 모호하게 만들어 조작하였다. 명백한 범죄 조건은 확실한 증거(즉, CCTV 등)를 통해 지갑을 들고 돈을 꺼내기까지의 행동을 보여주어 범죄임을 분명하게 만들었다. 반면 모호한 범죄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지갑을 들고 있는 행동은 절도행위 혹은 누군가에게 지갑을 찾아주려는 행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도록 조작하였다. 각 범죄 시나리오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작은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을 변화하여 높게 또는 낮게 조작하였고, 통제조건은 지위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각 범죄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백한 범법행위 시나리오

A씨는 주말마다 00결혼식장에서 아르바이트

를 하고 있었다. 예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고, 의자 위에는 누군가가 두고 간 지갑이 놓여있었다. 자리를 정리하던 A씨는 의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B씨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후 지갑을 분실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B씨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근처 쓰레기통에서 빈 지갑이 발견되었다.

#### 모호한 범법행위 시나리오

A씨는 주말마다 00결혼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예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고, 의자 위에는 누군가가 두고 간 지갑이 놓여있었다. 자리를 정리하던 A씨는 의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B씨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고(저):** B(42세)씨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수입은 약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B(42세)씨는 고등학교만 졸업하여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수입은 약 8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이 시나리오들은 사전조사 1을 통해 연구자간의 의도한대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본 실험 전에 하계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는 00대학교 학부생 129명의 자료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남학생 80명, 여학생 49명). 이들의 평균 연령은 23.58세( $SD=1.98$ )였다. 참가자들은 6개의 범죄 시나리오 조건 중 한 조건의 시나리오를 읽고, 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인물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과 시나리오 속 행동이 범법행위로 보기에 명백한지 혹은 모호한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조작은 “B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문항으로 측정하였다(1=매우 낮다, 7=매우 높다). 사회경제적 지위 조작 문항을 종속측정으로 3(사회경제적 지위: 고 vs. 저 vs. 통제) × 2(범죄의 명료성: 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기대했던 대로, 지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2, 123)=172.698, p<.001$ . 참가자들은 고 지위 조건( $M=5.77, SD=0.69$ ), 통제 조건( $M=3.24, SD=0.98$ ), 그리고 저지위 조건( $M=2.61, SD=0.75$ )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지위가 높다고 지각하였다. 범죄의 명료성(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에 대한 문항은 “B씨의 행위는 범죄행위로 보기에 모호하다(역산)”, “B씨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2였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평균계산 하였다 (1= 모호한 범법행위, 6= 명백한 범법행위). 범죄의 명료성 문항을 종속측정으로 위와 동일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 범죄의 명료성의 주효과만 나타났다,  $F(1, 123)=93.551, p<.001$ . 기대했던 대로, 참가자들은 명백한 범법행위 ( $M=4.88, SD=.991$ )를 모호한 범법행위( $M=2.82, SD=1.43$ ) 보다 더 명백한 범법행위로 지각하였다. 사전조사 1의 결과, 범죄의 명료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도한대로 조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범죄 시나리오를 연구 1에서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

##### 조작점검

범죄 시나리오를 읽은 후 참가자들은 범죄의 명료성(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을 묻는 두 문항 “B씨의 행위는 범죄 행위로 보기에 모호하다”, “B씨의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을 묻는 문항인 “B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1=매우 낮다, 6=매우 높다)에 응답하였다.

##### 도덕적 면허-처벌판단(종속변인)

범죄 시나리오 속 행위자(B씨)에 대한 참여자들의 처벌판단 정도는 “B씨를 처벌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으로 측정하였다(1=전혀 처벌하지 않는다, 6=매우 강하게 처벌한다). 이 문항은 본 연구의 종속측정이었다.

##### 도덕적 자격-우호적 해석(매개변인)

참가자들이 행위자의 행동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해석(도덕적 자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항목(“B씨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 “B씨의 행동은 나쁘다”, “B씨의 행동은 비도덕적이다”)에 각각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6점=매우 그렇다).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98로 나타났다. 본 문항들은 역산처리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위에 대해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 도덕적 신용-동정심(매개변인)

범법자에 대해 동정심(도덕적 신용)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항목(“B씨에게 측은한 마음이 든다.”, “B씨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B씨에게 온정은 느낀다.”)을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6점=매우 그렇다).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 결 과

#### 조작점검

#####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 고 조건 행위자를 저 지위로 지각한 2명의 참가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범죄의 명료성X사회경제적 지위의 2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효과는 유의미 하였다,  $F(2, 151)=332.416, p<.001$ . 기대했던 대로, 참가자들은 높은 지위 조건 ( $M=5.12, SD=.583$ ), 통제 조건( $M=3.08, SD=.796$ )

그리고 낮은 지위 조건( $M=1.87, SD=.674$ ) 순으로 지위를 높게 지각하였다.

### 범죄의 명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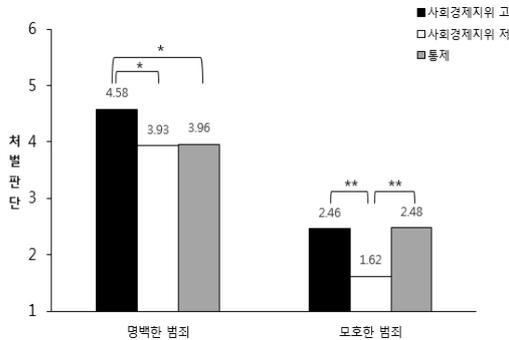
범죄의 명료성 각 조건 참가자들 중 범죄 행위의 명백함 또는 모호함 지각 점수 3점 이하인 참가자를 기준으로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 5명,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 20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범법행위의 명백함 지각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범죄의 명료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2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의 명료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151)=1181.984, p<.001$ . 기대했던 대로,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 참가자들( $M=5.43, SD=.652$ )이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 참가자들( $M=2.06, SD=.592$ ) 보다 B씨의 행동을 보다 명백한 범법행위로 지각하였다. 범법행위의 모호함 지각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범죄의 명료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151)=839.030, p<.001$ . 기대했던 대로,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 참가자들은( $M=4.87, SD=.732$ )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 참가자들( $M=1.53, SD=.729$ ) 보다 B씨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기에 모호하다고 지각하였다.

### 종속변인

범죄 시나리오 속 행위자에 대한 참가자의 처벌판단<sup>1)</sup>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2 (범죄의 명료성: 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X 3 (사회경제적 지위: 고 vs. 저 vs. 통제) 참가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죄의 명료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미하게 나타

나, 참가자들은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에게( $M=4.15, SD=.943$ ) 모호한 범법행위를 한 행위자( $M=2.18, SD=.1.155$ )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부여하였다,  $F(1, 151)=151.137, p<.001$ .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분석(Scheffe) 결과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 $M=3.52, SD=1.475$ )에게 지위가 낮은 행위자( $M=2.81, SD=1.388$ )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부여하였다,  $F(2, 151)=7.456, p<.001$ . 하지만 높은 지위 조건과 낮은 지위 조건 모두 통제조건( $M=3.24, SD=1.394$ )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예측했던 범죄의 명료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2, 151)=2.434, p=.091$ .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미리 예측한 바대로 범죄의 명료성 각 조건 별로 지위의 효과에 대한 계획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대로, 명백한 범죄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행위자( $M=3.93, SD=.813$ )와 통제조건( $M=3.93, SD=.813$ )에 비해 지위가 높은 행위자에게( $M=4.58, SD=.987$ ) 더 엄한 처벌을 하였다,  $F(2, 151)=3.494, p<.05$ . 이는 본 연구의 가설 1-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예측과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조건과 통제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모호한 범죄 상황의 관찰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와( $M=2.46, SD=1.067$ ) 통제조건( $M=2.48, SD=1.418$ )에 비해 지위가 낮은 행위자( $M=1.62, SD=.697$ )에게 더 관대한 처벌을 부여하였다,  $F(1, 151)=6.257, p<.01$ . 이 결과도 가설 2-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높은 지위 조건과 통제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행위자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관찰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에게 낮은 지위나 통제조건 보다 더 엄한 처벌을 하였다. 또한 행위자가 모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관찰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나 통제 조건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행위자에게 더 약한 처벌을 하였다.

1) 처벌판단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성별을 넣고 3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의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범죄의 명료성 각 조건에 대한 계획비교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지위 집단 3조건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처벌판단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모든 분석은 성별을 포함하지 않았다.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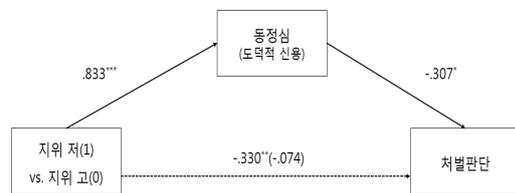
그림 1. 처벌판단에 대한 범죄의 명료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분산분석 결과(연구 1)

매개분석

범법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관찰자의 도덕적 면허 효과(처벌판단)에 미치는 매개과정을 확인하고자 두 개의 매개변인(즉, 동정심과 우호적 해석)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vs. 통제 조건)가 모호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찰자들이 행위자의 의문스러운 행동에 대해 우호적인 해석(도덕적 자격)을 하여 관대한 처벌을 부여할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본 연구의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통제조건과 높은 지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 1의 관찰자들은 범죄의 명료성 각 조건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행위자에 비해 높은 행위자에게 더 엄한 처벌을 하였다. 따라서 범죄의 명료성 각 조건 별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에 비해 낮은 지위 행위자에게 부여된 도덕적 면허 효과에 대한 매개과정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범법자에게 부여된 도덕적 면허가 동정심(도덕적 신용)을 통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검증을 실시하였다.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관찰자의 처벌 차이에 대한 동정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각 경로의 회귀분석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낮은 지위를 1로 높은 지위를 0으로 더미 코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높은 지위에 비해 낮은 지위로 갈수록 처벌 수준은 낮아졌다( $\beta = -.330$ ,  $p < .01$ ). 두 번째,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들에게 부여하는 동정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eta = .833$ ,  $p < .001$ ). 마지막으로 지위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행위자에게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참가자의 처벌은 낮아 졌고( $\beta = -.307$ ,  $p < .05$ ), 동정심을 통제 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효과가 처벌판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beta = -.074$ ,  $p = .68$ ). 또한 bootstrap 방법을 통해 동정심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973, -.037].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도덕적 면허가 부여되는 이유는 관찰자들이 이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1-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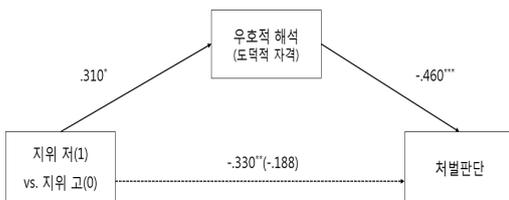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 명백한 범법행위: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 수준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동정심의 매개효과(연구 1)

다음으로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관찰자의 처벌 차이에 대한 우호적 해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각 경로의 회귀분석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높은 지위에 비해 낮은 지위로 갈수록 처벌 수준은 낮아졌다( $\beta = -.330$ ,  $p < .01$ ). 두 번째, 관찰자들은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들의 행동에 대해 우호적으로 해석하였다( $\beta = .310$ ,  $p < .05$ ). 마치

막으로 지위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행위자의 행동을 우호적으로 해석할수록 관찰자의 처벌은 낮아 졌으며( $\beta=-.460, p<.001$ ), 우호적 해석을 통제 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효과가 처벌판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beta=-.188, p=.87$ ). 또한 bootstrap 방법을 통해 우호적 해석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510, -.105$ ].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 달리, 관찰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높은 사람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보다 더 우호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처벌판단을 낮추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  $p<.05$ , \*\*  $p<.01$ , \*\*\*  $p<.001$

그림 3. 명백한 범법행위: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 수준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우호적 해석의 매개효과 (연구 1)

또한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고(0) 대 통제조건(1)의 차이에 대한 두 개의 매개분석(동정심과 우호적 해석) 결과는 앞서 분석한 사회경제적 지위 고 대 저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bootstrap 방법을 통해 동정심[ $-.431, 1.027$ ]과 우호적 해석[ $-.564, -.063$ ]에 대한 간접효과를 각각 확인한 결과 모두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낮은 지위를 1로 높은 지위를 0으로 더미 코딩하여 동일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지위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동정심이 처벌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225, p>.10$ ). 그 외 모호한 범법 행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고 대 저

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우호적 해석의 매개 분석이나, 지위 저 대 통제의 효과에 대한 매개 분석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논 의

연구 1에서는 Polman 등(2013)의 연구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검증 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다른 행위자가 명백한 또는 모호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시나리오를 읽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판단을 하였다. 연구 결과,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명백한 범죄의 경우,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에 비해 지위가 낮은 행위자에게 더 약한 처벌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예측한 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 대상에 대한 동정심에 의해 매개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통제조건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조건에서의 처벌 판단이 같았고,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조건보다 더 낮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고저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우호적 해석에 의해 매개되었다는 결과(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명백한 범죄행동에 대해 덜 우호적으로 해석하여 처벌판단을 높였다)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관찰자들이 명백한 범죄에 대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조건의 대상에게 동정심이 유발되어 더 관대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조건의 대상의 행동을 대상의 지위가 낮은 경우나 지위정보가 없는 경우보다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였고(즉, 더욱 나쁜 범죄행위다) 그 결과 더 엄격하게 처벌하였다는 해석이 유력해진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대상에게 도덕적 면허가 주어 졌다고보다 지위가 높은 대상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모호한 범죄의 경우,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나 통제 조건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행위자에게 더 약한 처벌을 하여 가설 2-1이 일부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설 2-1과 일치하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대상에게만 약한 처벌이 부여되었지만, 동정심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 가설대로라면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에서는 낮은 지위 범법자와 동일한 정도의 도덕적 면허가 지위가 높은 범법자에게도 부여되어야 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법자에 대한 도덕적 면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인 Polman 등(2013)의 연구 결과(즉, 지위가 높거나 낮은 행위자들이 모호한 범법행동을 했을 때 두 조건 모두에서 도덕적 면허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효과는 높은 지위에 대해서는 우호적 해석을 통해, 그리고 낮은 지위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통해 발생했다) 와도 다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대안적 해석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고지위 대상에 대해 더욱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해 위선적 이라든지 이기적이라든지 하는 인식들을 더 가지고 있고, 이는 ‘금수저, 흙수저’론이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죄가 명백하건 모호하건 간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대상에 대해 좀 더 관대한 처벌판단을 하고, 다른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벌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 1의 결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Polman 등(2013)의 연구 3과 본 연구 1에서의 고지위 직업의 차이에 있을 수 있다. 즉, Polman 등(2013)의 연구(연구 3)에서 높은 지위 조작은 재활(사회갱생)거주의 책임자로 직업특성이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의 높은 지위는 교육수준(박사학위)과 경제수준(월수입 1000만원)을 직접

적으로 제시하였다. Cuddy, Fiske와 Glick(2008)에 따르면, 따뜻함과 유능함은 인상형성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격관련 정보들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차원으로 타인의 행동을 해석 및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류기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높은 지위(즉, 높은 능력) 행위자에 대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간 따뜻함 지각 수준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Polman 등(2013)의 연구에서는 재활거주지에서 사람들의 사회갱생을 돕는 책임자는 직업특성상 유능성과 따뜻함이 모두 높게 지각되어 관대한 처벌이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 1의 참가자들은 연구 1에서 조작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즉, 고학력·고수입 전문직)에 대해 유능성은 높지만 따뜻함은 적게(차갑게) 지각하였고 이에 따라 선행연구와 달리 높은 처벌을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법자에 대한 지위(즉, 유능성) 이외에 따뜻함 지각정도가 관찰자의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2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해석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연구 2

사람들은 처음 보는 타인에 대한 외적특성과 성격 관련 정보들을 단시간에 추측하여 인상을 형성한다(Higgins, Rholes, & Jones, 1977; Willis & Todorov, 2006). 인상 형성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격 관련 정보들은 크게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으로 나누어진다(Fiske 등, 2002; Fiske, Cuddy & Glick, 2007; Judd, James-Hawkins, Yzerbyt & Kashima, 2005). 이러한 유능성과 따뜻함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타인에 대한 행동을 해석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류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uddy, Fiske & Glick, 2008). Fiske 등(2002)이 제안한 고정관념 내용 모델에 따르면,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고정관념은 두 가지 차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즉, 유

능성과 따뜻함 지각. 사회적 자원들에 대한 집단 간(즉, 내집단과 대상이 속한 다른 집단 간)의 경쟁 지각은 따뜻함 정도를 결정하고, 외집단과 비교한 상대적 지위 지각은 유능함 정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지위가 높은 집단은 능력이 높다고 지각되나 지위가 낮은 집단 구성원들은 유능하지 않다고 지각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운동가와 같이 내집단을 그다지 해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지각하지만, 홈리스와 같은 사람들(즉, 내가 낸 세금을 공짜로 먹고 사는, 따라서 내집단에게 해를 끼치는)에 대해서는 차가운 사람들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능성과 따뜻함 차원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각각 유발되는 감정들은 서로 다르다(Fiske 등, 2002, Cuddy 등, 2008). Fiske 등(2002)은 유능함과 따뜻함이 모두 높은 집단의 경우 찬미의 감정이, 유능함은 높지만 차갑게 지각된 경우 질투의 감정이 유발되며, 무능하지만 따뜻하게 지각된 경우엔 연민의 감정이, 무능하고 차갑게 지각된 경우에는 경멸의 감정이 유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찰자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에 대한 지각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범법자의 유능성(지위)과 따뜻함에 대한 관찰자들의 지각수준에 따라 처벌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고정관념내용 모델에 근거하여, 범법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유능성(지위)과 따뜻함 지각이 제 3자 도덕적 면허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능성과 따뜻함 지각 및 범죄의 명료성(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의 상호작용이 관찰자의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1에서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모호한 범법행동을 저질렀을 경우 이들에게 도덕적 면허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Polman 등(2013)의 연구(연구 3)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모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행동에 대한 우호적 해석(즉, 도덕적 자격)을 통해 도덕적 면허

를 받았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지위조작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Polman 등(2013)의 연구의 지위 조작은 재할(사회갱생)거주지의 책임자였지만 본 연구 1에서는 고학력·고수입 전문직이었다. 따라서 높은 지위 행위자에 대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간 따뜻함 지각 수준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했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할거주지에서 사람들의 사회갱생을 돕는 책임자는 직업특성상 유능성과 따뜻함이 모두 높게 지각되어 도덕적 면허가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 1에서 사용된 대상의 직업인 고학력·고수입 전문직에 대해서는 유능성은 높지만 차갑게 지각되어 도덕적 면허가 부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2에서는 범죄성이 모호한 행동을 했을 경우 유능하고 따뜻하게 지각되는 대상(예를 들어, 인권운동가)에게는 도덕적 자격(즉, 우호적 해석) 지각을 통해 도덕적 면허가 부여되지만 유능하지만 차갑게 지각되는 대상(예를 들어, CEO)에는 도덕적 자격을 지각하지 않고 이에 따라 도덕적 면허가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다른 한편 모호한 범죄의 경우 각 따뜻한 혹은 차가운 대상에 대해 유능성에 따라 다른 처벌판단을 하는 지를 검토해보면, 대상이 따뜻하다고 지각되면 유능하거나 무능한 경우의 처벌판단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따뜻하면서 유능한 대상의 경우는 우호적 해석을 통해, 따뜻하면서 무능한 대상의 경우는 동정심을 통해 처벌판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이 차가운 경우에는 유능한 대상에 대해 무능한 대상에 대해서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여전히 동정심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상이 차가운 경우 무능한 대상에 대해서도 혐오의 감정이 생기고 동정심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측을 유보한다. 이와 같이 연구 2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과거 연구결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면, 명백한 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외국과 한국의 최근 선행연구들이(최승혁, 허태균 2012; Fragale 등, 2009; Polman 등, 2013) 보다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1도 최근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였는데,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지위가 낮은 사람 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였다. 즉,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는 보다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매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위가 높은 대상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의 경우에는, 대상의 따뜻함이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권운동가가 절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한 경우는 더욱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지각하도록 만들고 이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명백한 범죄행위의 경우는 대상의 따뜻함이 지위가 높은 대상에게 오히려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행위자가 속해있는 집단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유발되는 감정(찬미, 질투, 연민, 경멸)으로 인해 도덕적 면허가 부여되는 정도 또한 다를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유능함과 따뜻함이 모두 높은 집단(인권운동가 등)의 경우 찬미의 감정이 유발된다고 보았을 때, 관찰자들은 이 집단에 속한 행위자가 모호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도덕적 면허를 부여하지만,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오히려 위선적이라 느껴 더 높은 처벌을 할 것이다. 무능하지만 따뜻하게 지각된 집단(신체장애인 등)의 경우에 연민의 감정이 유발되는데, 관찰자들은 범죄의 명료성에 상관없이 이 집단에 속한 행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여할 것이다. 유능하지만 차갑게

지각된 집단(CEO 등)의 경우 질투의 감정이, 무능하고 차갑게 지각된 집단(노숙자 등)의 경우에는 경멸의 감정이 유발된다고 보았을 때, 관찰자들은 범죄의 명료성에 상관없이 이 두 집단에 속한 행위자들에게 도덕적 면허를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1에서 행위자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 고저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동정심외에 우호적 해석을 통해서도 매개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도 서술하였듯이, 범죄성이 명백할 때, 관찰자들은 낮은 지위 대상에게 동정심을 느껴 관대처벌을 하일 수도 있지만, 높은 지위 대상의 행위를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엄한 처벌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 이러한 매개 과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연구 설계 및 가설

본 연구 2의 설계는 2(범죄의 명료성: 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동) X 2(유능성: 유능함 vs. 무능함) x 2(따뜻함: 따뜻함 vs. 차가움) 참가자간 3원 설계이며, 종속측정은 범법자에 대한 처벌판단이다.

**가설 1-1 명백한 범법행위의 경우,** 참가자들은 유능하고 따뜻하게 지각된 대상(인권운동가 등)에 비해 무능하지만 따뜻하게 지각된 대상(신체장애인 등)에게 보다 관대한 처벌판단을 할 것이다. 반면, 유능하고 차갑게 지각된 대상(CEO 등)과 무능하고 차갑게 지각된 대상(노숙자 등) 간 처벌수준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두 집단(CEO와 노숙자)에 비해 무능하지만 따뜻하게 지각된 대상에게 더 관대한 처벌판단을 할 것이다.

**가설 1-2 명백한 범법행위의 경우,** 무능하지만 따뜻한 대상에 대해 유능한 대상에 대해서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하게 되는 효과는 동정심 혹은 우호적 해석을 통해 발생할 것이다(매개가

표 2. 연구 2 가설 정리(범죄의 명료성 x 유능성 x 따뜻함)

	명백한 범죄				모호한 범죄			
	유능함		무능함		유능함		무능함	
	따뜻함	차가움	따뜻함	차가움	따뜻함	차가움	따뜻함	차가움
	인권 운동가	CEO	신체 장애인	노숙자	인권 운동가	CEO	신체 장애인	노숙자
도덕적 면허효과	면허(X)	면허(X)	면허(O)	면허(X)	면허(O)	면허(X)	면허(O)	면허(X)
기제(매개)	-	-	동정심	-	우호적 해석	-	동정심	-

설).

**가설 2-1 모호한 범법행위의 경우,** 참가자들은 대상이 유능한 경우, 따뜻한 대상(인권운동가 등)에게 차가운 대상에 대해서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할 것이다. 또한 대상이 무능한 경우에도 따뜻한 대상(신체장애인 등)에 대해 차가운 대상에 대해서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할 것이다. 즉, 모호한 범죄의 경우 유능성에 상관없이 따뜻한 대상에게만 도덕적 면허가 부여될 것이다.

**가설 2-2 모호한 범법행위의 경우,** 가설 2-1에서와 같이 따뜻한 대상(인권운동가, 신체장애인)에게 차가운 대상(CEO, 노숙자)에게와 달리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는 대상의 유능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제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능하고 따뜻하게 지각된 대상에 대해 유능하면서 차가운 대상에 대해서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하게 되는 효과는 우호적 해석(도덕적 자격)을 통해 발생할 것이다. 반면, 무능하지만 따뜻하게 지각된 대상에 대해 무능하면서 차가운 대상에 대해서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하게 되는 효과는 동정심(도덕적 신용)을 통해 발생할 것이다(매개가설).

참가자

00대 prefapsy 구글 실험 참여 모집시스템을 이용하여 심리학 교양 수업을 듣는 대학생 실험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총 228명의 참여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18세에서 26세까지로 평균(SD) 22.9(2.97)세였으며, 본 실험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실험참여점수가 주어졌다. 이 중 불성실 응답 2명, 연구 1 참여자 5명, 범죄의 명료성 조작에 실패한 9명(명백한 조건 1명, 모호한 조건 8명)을 제외한 총 212명(남자 108명, 여자 104명)의 참가자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2를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은 범죄 시나리오 상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유능하고 따뜻한 대상[인권운동가] 28명, 무능하고 따뜻한 대상[신체장애인] 26명, 유능하고 차가운 대상[CEO] 26명, 무능하고 차가운[노숙자] 27명) 또는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유능하고 따뜻한 대상[인권운동가] 26명, 무능하고 따뜻한 대상[신체장애인] 25명, 유능하고 차가운 대상[CEO] 27명, 무능하고 차가운 대상[노숙자] 27명)에 무선 할당 되었다.

연구 2 사전조사

연구 2의 범죄 시나리오에서 조작으로 사용할 고정관념 집단(유능함/따뜻함)을 선별할 목적으로

## 방 법

표 3. 각 집단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의 평가 평균(SD)

집 단	유능성	따뜻함	t
영세민	2.61(.59)	3.21(.92)	-9.754***
<b>인권운동가</b>	<b>4.47(.67)</b>	<b>4.10(.86)</b>	<b>5.652***</b>
동남아이주민	3.03(.76)	3.27(.85)	-3.250***
<b>전문경영인(CEO)</b>	<b>5.06(.48)</b>	<b>2.75(.64)</b>	<b>39.504***</b>
일용직노동자	2.71(.72)	3.16(.79)	-7.071***
<b>노숙자</b>	<b>1.70(.57)</b>	<b>2.21(.73)</b>	<b>-9.336***</b>
부유층	4.16(.72)	2.64(.70)	25.104***
<b>신체장애인</b>	<b>3.08(.70)</b>	<b>3.65(.84)</b>	<b>-9.138***</b>
기초생활수급자	2.65(.63)	3.42(.87)	-11.593***

\*  $p < .05$ , \*\*  $p < .01$ , \*\*\*  $p < .001$

로 사전조사 2를 실시하였다. 심리학 교양수업을 듣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81명의 자료를 (남:89명, 여:92명; 불성실 응답 5개 제외)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주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으로 알아보았던 김혜숙 등(2003)의 연구를 토대로 사전조사에서 검토할 고정관념 집단을 선정하였다. 사전조사2에서 검토한 집단은 총 9개 집단으로, 이들은 영세민, 인권운동가, 동남아이주민, 전문경영인(CEO), 일용직노동자, 노숙자, 부유층, 신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집단이었다. 참가자들은 각 집단의 유능함을 측정하는 3문항(유능성, 자신감, 지적인 정도;  $\alpha = .651 \sim .799$ )과 따뜻함을 묻는 3문항(따뜻함, 착함, 정이 많음;  $\alpha = .819 \sim .930$ )에 대해 6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각 문항을 합산하여 결과 분석을 하였다.

표 3에 각 대상 집단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 평균과 그 차이의 유의미도를 분석한 paired t 검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한 모든 집단에 대한 평가에 있어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 2에서 조작으로 쓰일 4개의 집단<sup>2)</sup>

2) 추가적으로 집단 각각의 유능성 점수와 따뜻함 점수를

을 선별했다. 유능하고 따뜻한 대상으로 “인권운동가”, 무능하고 따뜻한 대상으로 “신체장애인”, 유능하고 차가운 대상으로 “전문경영인(CEO)”, 무능하고 차가운 대상으로 “노숙자”가 선정되었다.

#### 실험 절차

한 실험 당 1~6명의 참여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이 실험실로 들어와 칸막이가 설치된 각 책상에 앉으면,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척도의 중간점인 3.5점과 비교하기 위해 일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4개 집단 각각의 유능성과 따뜻함 점수는 모두 척도의 중간점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신체장애인의 경우 유능성(3.08)과 따뜻함(3.65) 점수가 두드러지게 낮거나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두 점수 모두 척도의 중간점(3.50)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유능성,  $t = -7.87$ ,  $p < .001$ ; 따뜻함,  $t = 2.46$ ,  $p < .05$ ), 이를 근거로 무능하고 따뜻한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유의미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점수는 여전히 중간 정도여서 그리 강하지 않은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목적으로 각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 묻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명목상 본 연구는 ‘정보제시 방식이 기억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라고 소개하고 실험에 대한 주의 및 지시사항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실험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범죄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질문 항목들이 들어간 질문지를 한 부씩 나누어 주었다. 참가자들은 명백한 또는 모호한 범법행위에서 행위자의 유능성과 따뜻함을 조작한 시나리오를 읽고 조작점검 문항과 종속변인 및 매개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모든 실험이 종료되고 사후 설명을 하였다.

### 범죄 시나리오

연구 2의 범죄 시나리오는 연구 1의 범죄 시나리오와 비교해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범법행위가 발생하는 장소가 결혼식장에서 편의점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고정관념 집단 중 노숙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상황설정을 위해 변경하였다. 두 번째, 사전조사2를 통해 선별된 4개의 고정관념 집단이 시나리오 속에 제시되어 유능함과 따뜻함 조작이 이루어졌다.

####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A씨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 얼마 후 모든 손님들이 떠났고,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가 두고 간 지갑이 놓여있었다. 바쁘게 일을 하던 A씨는 B씨(42세, **인권운동가(신체장애인, CEO, 노숙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들고 안을 확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후 어떤 사람이 A씨에게 찾아와 자신의 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경찰이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B씨가 그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근처 쓰레기통에서 빈 지갑이 발견되었다.

####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A씨가 근무

를 하고 있을 때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 얼마 후 모든 손님들이 떠났고,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가 두고 간 지갑이 놓여있었다. 바쁘게 일을 하던 A씨는 B씨(42세, **인권운동가(신체장애인, CEO, 노숙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들고 안을 확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 측정도구

#### 조작점검

범죄 시나리오를 읽은 후 참가자들은 범죄의 명료성(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을 묻는 두 문항 “B씨의 행위는 범죄 행위로 보기에 모호하다”, “B씨의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 처벌판단(종속변인)

하나의 문항만을 포함한 연구 1과 달리, 범죄 시나리오 속 행위자(B씨)에 대한 참여자들의 처벌판단 정도는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B씨를 처벌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1= 전혀 처벌하지 않는다, 6=매우 강하게 처벌한다) 문항 외에 “B씨에게 벌금형이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1= 0원, 6= 600만원 이상) 문항을 추가하여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본 연구의 종속측정이었다.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80로 나타났다.

#### 우호적 해석(매개변인)

연구 1과 동일하였다. 관찰자들이 범법자의 행동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해석하는지 측정하는 3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 동정심(매개변인)

연구 1과 동일하였다. 관찰자들이 범법자에 대해 동정심을 얼마나 느끼는가를 측정하는 3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 결 과

### 조작점검

#### 범죄의 명료성

범죄의 명료성 각 조건 참가자들 중 범법행위의 명백함과 모호함 지각 점수 3점 이하인 참가자를 기준으로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 1명,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 8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범법행위의 명백함 지각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범죄의 명료성X유능성X따뜻함 3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의 명료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204)=492.473, p<.001$ . 기대한대로,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 참가자들은( $M=5.28, SD=.711$ )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 참가자들( $M=2.47, SD=1.17$ ) 보다 B씨의 행동을 더욱 명백한 범법행위로 지각하였다. 범법행위의 모호함 지각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범죄의 명료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204)=637.908, p<.001$ . 기대한대로,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 참가자들은( $M=4.65, SD=.940$ )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 참가자들( $M=1.71, SD=.847$ ) 보다 B씨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기에 더욱 모호하다고 지각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2의 범죄의 명료성 조작은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종속변인

범죄 시나리오 속 행위자에 대한 참가자의 처벌판단 수준<sup>3)</sup>을 알아보기 위해 2(범죄의 명료성: 명백한 vs. 모호한 범법행위)X 2(유능성: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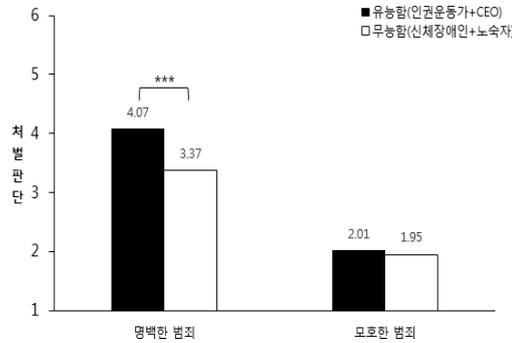
능함 vs. 무능함)X 2(따뜻함: 따뜻함 vs. 차가움) 참가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범죄의 명료성X유능성,  $F(1, 204)=7.712, p<.01$ , 그리고 범죄의 명료성X따뜻함,  $F(1, 204)=5.224, p<.05$ , 각각의 2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또한 범죄의 명료성, 유능성 그리고 따뜻함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미하였다. 참가자들은 명백한 범법행위( $M=3.72, SD=.833$ )에 대해 모호한 범법행위( $M=1.97, SD=.925$ )에 비해 더 높은 처벌판단을 하였고,  $F(1, 204)=235.842, p<.001$ , 무능한 대상에( $M=2.65, SD=1.060$ ) 비해 유능한 대상에게( $M=3.04, SD=1.373$ ) 더 높은 처벌을 부여하였다,  $F(1, 204)=11.134, p<.001$ . 또한 차갑게 지각되는 대상에게( $M=3.01, SD=1.192$ ) 따뜻하게 지각되는 대상에( $M=2.69, SD=1.278$ ) 비해 더 많은 처벌을 부여하였다,  $F(1, 204)=7.509, p<.01$ . 범죄의 명료성x유능성x따뜻함의 3원 상호작용은 유의미 하지 않았다,  $F(1, 204)=.006, p=.939$ .

그림 4와 5에 처벌판단에 대한 범죄의 명료성x유능성과 범죄의 명료성x따뜻함의 2원 상호작용 결과가 각각 제시되어있다. 범죄의 명료성x유능성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그림 4),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유능하게 지각된 대상( $M=4.07, SD=.860$ )이 무능하게 지각된 대상들( $M=3.37, SD=.642$ ) 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았다,  $F(1, 208)=18.060, p<.001$ . 이는 예상과 달리 연구 2의 가설 1-1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설 1-1에 따르면 명백한 범죄의 경우, 신체장애인(무능-따뜻)은 다른 3개의 집단인 인권운동가(유능-따뜻), CEO(유능-차갑) 그리고 노숙자(무능-따뜻) 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미리 예측한 바대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명백한 조건의 4개 집단에 대한 계획비교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1, 204)=6.306, p<.001$ .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예상과 달리 신체장애인(무능-따뜻)은 인권운동가(유능-따뜻)와 CEO(유능-차갑) 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았지만, 노숙자(무능-차갑)와의 처벌판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처벌판단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성별을 넣고 4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의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범죄의 명료성 각 조건에 대한 계획비교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능성과 따뜻함 각 조건에서 성별에 따른 처벌판단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모든 분석은 성별을 포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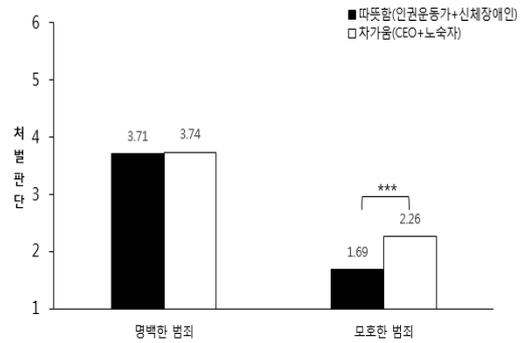
표 4. 범죄의 명료성, 유능성, 따뜻함에 따른 처벌판단(종속변인)의 평균(SD)

	명백한 범죄				모호한 범죄			
	유능함		무능함		유능함		무능함	
	따뜻함	차가움	따뜻함	차가움	따뜻함	차가움	따뜻함	차가움
	인권 운동가	CEO	신체 장애인	노숙자	인권 운동가	CEO	신체 장애인	노숙자
참가자(n)	28	26	26	27	26	27	25	27
처벌판단	4.05 (.82)	4.09 (.92)	3.35 (.69)	3.41 (.61)	1.73 (.80)	2.28 (1.02)	1.64 (.62)	2.24 (1.04)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4. 처벌판단에 대한 범죄의 명료성과 유능성의 상호작용 결과(연구 2)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5. 처벌판단에 대한 범죄의 명료성과 따뜻함의 상호작용 결과(연구 2)

다. 즉, 명백한 범죄의 경우 무능한 집단(신체장애인, 노숙자) 모두가 유능한 집단(인권운동가, CEO) 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지위가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받았던 연구 1의 결과를 반복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에서는 유능하게 지각된 대상( $M=2.01$ ,  $SD=.948$ )과 무능하게 지각된 대상( $M=1.95$ ,  $SD=.909$ )에 대한 처벌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208)=.121$ ,  $p=.729$ .

범죄의 명료성×따뜻함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그림 5),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따뜻하게 지각된 대상( $M=3.71$ ,  $SD=.833$ )과

차갑게 지각된 대상( $M=3.74$ ,  $SD=.841$ )간 처벌판단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208)=.038$ ,  $p=.846$ . 그러나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따뜻하게 지각된 대상( $M=1.69$ ,  $SD=.713$ )은 차갑게 지각된 대상( $M=2.26$ ,  $SD=1.017$ )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F(1, 208)=11.633$ ,  $p<.001$ . 이 결과는 모호한 범법행위의 경우, 대상의 유능함에 상관없이 따뜻하게 지각된 대상들(인권운동가, 신체장애인)에게만 도덕적 면허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던 본 연구의 가설 2-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요약하면, 관찰자들은 명백한 범법행동의 경우 대상의 따뜻함에 상관없이 유능하게 지각되는 사람에게 무능하게 지각되는 사람보다 더 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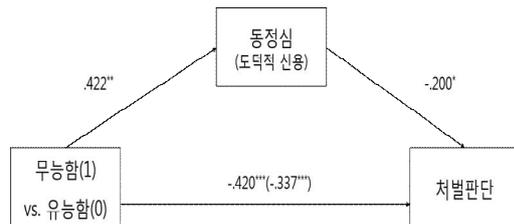
한 처벌을 하였지만, 모호한 범법행동의 경우 대상의 유능함에 상관없이 따뜻하게 지각되는 사람에게 차갑게 지각되는 사람보다 더 약한 처벌을 하였다.

### 매개분석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유능성에 따른 처벌 수준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또한 모호한 범법행위에서 따뜻함에 따른 처벌 수준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각각의 효과가 어떠한 매개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절차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검증을 실시하였고 또한 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간접효과를 검토하였다. 우선,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무능한(vs. 유능함) 사람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효과가 동정심을 통해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무능함을 1로 유능함을 0으로 더미 코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는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에서 대상이 무능하게 지각될수록 처벌 수준은 낮아졌다( $\beta = -.420, p < .001$ ). 2단계에서, 대상이 무능할수록 이들에게 부여되는 동정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beta = .422, p < .01$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유능함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대상에게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처벌은 낮아졌고( $\beta = -.200, p = .05$ ), 동정심을 통제 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대상이 무능할수록 처벌수준은 낮아졌다( $\beta = -.337, p = .001$ ). 또한 bootstrap 방법을 통해 동정심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3118, -.0165]. 즉, 무능한 사람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도덕적 면허가 부여되는 이유는 관찰자들이 이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연구 1의 명백한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행위자에게 발생한 도덕적 면허효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무능한 대상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가 우호적 해석을 통해 발

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 방법을 통해 우호적 해석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0817, .0183]. 즉 무능한 대상에 부여된 관대한 처벌은 우호적 해석을 통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행위자의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동정심외에 우호적 해석을 통해서도 매개효과가 나타났던 본 연구 1의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두 번째 매개검증으로,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따뜻한(vs. 차가운) 대상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 효과가 어떠한 심리적 기제(동정심 혹은 우호적 해석)를 통해 발생하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행동에 대한 우호적 해석에 대한 매개검증을 하였다. 따뜻함을 1로 차가움을 0으로 더미 코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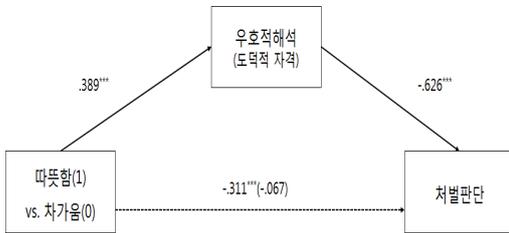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6. 명백한 범법행위 조건: 유능성(지위) 지각 수준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동정심의 매개효과(연구 2)

이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는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에서 대상이 따뜻하게 지각될수록 처벌 수준은 낮아졌다( $\beta = -.311, p < .001$ ). 2단계에서, 따뜻하게 지각될수록 대상의 행동에 대해 우호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beta = .389, p < .001$ ). 3단계에서 따뜻함 수준을 통제했을 때, 행동에 대해 우호적 해석을 할수록 처벌수준 낮아졌으며( $\beta = -.626, p = .001$ ), 우호적 해석을 통제 하였을 때, 대상의 따뜻함 수준이 처벌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beta = -.067, p = .408$ ). 또한 bootstrap 방법을 통해 우호적해석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7312, -.2391]. 따라서 따뜻한 대상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 효과는 행동에 대한 우호적 해석을 통해 완전 매개되었다. 반면, 동정심을 매개 변인으로 동일한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지만 95% 신뢰구간[-.0722, .0249] 사이에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따뜻한 대상에게 부여되는 관대한 처벌은 동정심을 통해 발생하지 않았다.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7.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 따뜻한 지각 수준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우호적 해석의 매개효과(연구 2)

다음, 본 연구의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연구자가 예상한 매개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모호한 범법행위의 경우, 유능하고 따뜻하게 지각된 대상(인권운동가)에 대해 유능하지만 차갑게 지각된 대상과 달리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는 우호적 해석(도덕적 자격)을 통해, 또한 무능하지만 따뜻하게 지각된 대상(신체장애인)에게 무능하고 차갑게 지각된 대상에 대해서와 달리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는 동정심(도덕적 신용)을 통해 부여될 것이라는 매개가설을 검토하였다. 우선, 유능하고 따뜻하게 지각되는 인권운동가(vs. 유능하고 차갑게 지각된 대상[CEO])에게 발생하는 도덕적 면허 효과가 우호적 해석을 통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 방법을 통해 우호적 해석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8241, -.2253]. 이는 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무능하지만 따뜻하게 지각된 신체장애인(vs. 무능하고 차갑게 지각된

대상[노숙자])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가 동정심(도덕적 신용)을 통해 발생하는지 확인하였지만, 매개변인인 동정심으로 가능 회귀 경로가 유의미 하지 않았다( $\beta = .066$ ,  $p = .554$ ). 이는 무능하지만 따뜻한 대상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가 동정심(도덕적 신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가설 2-2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우호적 해석을 통한 매개분석을 추가 실시하였다. bootstrap 방법을 통해 우호적 해석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7800, -.0872]. 종합하면, 모호한 범법행위의 경우, 관찰자들은 유능함에 상관없이 따뜻하게 지각되는 대상의 행동을 더 우호적으로 해석하여 도덕적 면허를 부여하였다.

## 논 의

연구 2에서 범죄의 명료성과 유능성, 범죄의 명료성과 따뜻함 각각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연구 2의 가설 1-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여 행위자가 명백한 범법행동을 했을 때, 관찰자들은 유능하게 지각되는 사람보다 무능하게 지각되는 사람에게 도덕적 면허(관대한 처벌)를 부여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 1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복지지하고 있다(최승혁, 허태균 2012; Fragale 등, 2009; Polman 등, 2013). 또한 유능한 사람에 대해서와 달리 무능한 사람에게 부여된 도덕적 면허는 관찰자들이 무능한 사람에게 동정심(도덕적 신용)을 느껴서 나타났다. 본 연구 1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관찰자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껴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따라서 상대적 지위지각으로 인해 유능성 지각이 발생한다고 볼 때, 본 연구 1과 2의 명백한 범죄 조건의 결과는 사회적 지위 지각(즉, 능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1에서 관찰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명백한 범

죄행동에 대해 덜 우호적으로 해석하여 엄한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연구 1과 달리, 연구 2에서는 명백한 범죄 상황에서 유능함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우호적 해석에 의해 매개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연구 2에서 관찰자들은 행위자의 범죄성이 명백할 때 유능한 대상에 비해 무능한 대상에게 동정심을 느껴 관대한 처벌을 내렸지만,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Polman 등(2013)은 도덕적 실행이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지만, 행위에 대한 지각(해석)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다. 즉,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절도행위를 했을 경우 돈을 훔친 행동은 비도덕적이고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관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2의 명백한 조건의 유능성에 따른 처벌판단 차이에 대한 매개효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2의 가설 1-1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즉, 관찰자)들은 신체장애인(무능-따뜻)에게만 약한 처벌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노숙자(무능-차갑)에게도 유능한 집단(인권운동가와CEO)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하였다. 고정관념모델에 근거하면, 노숙자와 같은 집단은 지위가 낮고 사회로부터 자원을 갈취(즉, 협조 보다는 경쟁) 해가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단고정관념은 유능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지각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각으로 인해 다른 집단에 비해 경멸과 혐오의 감정을 유발한다. 연구 2는 이러한 고정관념내용모델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죄성이 확실하더라도 무능하거나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 따뜻함 지각 수준에 상관없이 유능하고 지위가 높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무능한 대상에 대한 동정심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지만, 유능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감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행위자가 모호한 범법 행위를 하였을 때, 관찰자들은 차갑게 지각되는 사람보다 따뜻하게 지각되는 사람에게 도덕적 면허(관대한 처벌)를 부여하였다. 이는 예측했던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때 발생한 도덕적 면허 효과는 관찰자들이 따뜻한 사람의 모호한 행동을 우호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매개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여, 유능하고 따뜻한 대상인 인권운동가가 모호한 범법행동을 저질렀을 때, 행동에 대한 우호적 해석을 통해 도덕적 면허가 부여되었지만 무능하고 따뜻한 대상인 신체 장애인에게 부여된 도덕적 면허는 가설과 달리 동정심이 아닌 행동에 대한 우호적 해석을 통해 나타났다.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범죄가 모호한 상황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의 행동을 우호적으로 해석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였지만, 본 연구 1의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면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1의 결과가 미국 선행 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연구 2의 모호한 범법행위 조건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연구 1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대상이 유능하고 차가운 대상으로 지각되었기 때문에 이 대상을 지위가 낮은 대상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 전체 논의

연구 1과 2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 명백한 범죄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대상을 낮은 사람들 보다 더 처벌하고(연구 1), 유능하게 지각되는 대상을 무능하게 지각되는 대상 보다 더 처벌하였다(연구 2). 또한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유능성에 따른 처벌차이 효과는 동정심(연구 1과 2)이 매개하였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범죄성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행위자의 따뜻함 지각 수준에 상관없이 지위나 유능성에 따

라 처벌판단을 달리했다. 이는 사법당국의 ‘유전 무죄, 무전유죄’ 식 처벌판단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Polman 등 (2013)의 연구(연구 2) 결과를 반복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들의 연구 2에서, 참가자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명백한 도덕적 위반 행위(누군가 5명의 백인과 2명의 흑인 직장 후보자를 인터뷰하고 백인들만 고용한 상황에서 평소 흑인을 싫어한다는 내용의 메일 발견)를 저질렀을 때 낮은 사람에 비해 더 처벌하였다. 또한 최승혁과 허태균 (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도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범죄성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낮은 사람에 비해 더 처벌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범죄성이 명백할 경우, 관찰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유능한 사람 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무능한 사람에게 도덕적 면허를 부여하여 관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호한 범죄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대상을 낮은 사람들보다 더 처벌하였으며(연구 1), 차갑게 지각되는 대상을 따뜻하게 지각되는 대상 보다 더 처벌하였다(연구 2). 하지만 연구 1에서 매개효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과 달리, 연구 2에서 관찰자들은 따뜻하게 지각되는 대상의 행동을 우호적으로 해석하여 관대한 처벌을 부여하였다. 연구 1과 2의 결과는 Polman 등(2013)의 연구(연구 3)와 일관되지 않은 결과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범죄가 모호한 상황에서 관찰자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의 행동을 우호적으로 해석하여,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동정심을 느껴 관대한 처벌을 하였다. 반면, 본 연구 2에서 관찰자들은 유능한 사람들이 모호한 범죄행동을 했을 때, 이들에 대한 집단고정관념이 따뜻할 경우에 우호적 해석을 통해 도덕적 면허를 부여하였지만, 차가울 경우 도덕적 면허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 근거하면, 본 연구 1의 모호한 범죄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대상

에게 도덕적 면허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참가자들이 이들을 차갑게 지각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무능한 사람들이 모호한 범법행동을 하였을 때, 따뜻하게 지각될 경우 우호적 해석을 통해 도덕적 면허가 부여되었고, 차갑게 지각될 경우 도덕적 면허가 부여되지 않았다. 즉,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모호한 상황에서는 행위자의 지위나 유능성이 아닌 따뜻함 지각 수준에 따라 관찰자들의 처벌판단이 달라졌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들이 검토하지 못한 새로운 결과이며, 이 결과는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과거 연구 결과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범죄 시나리오에서 누군가 지갑을 가져가는 절도행동만을 사용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들(예. 성폭력 혹은 횡령)을 도덕적 면허 효과 맥락에서 검토했을 경우 연구결과가 어떻게 달라 질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제 3자 도덕적 면허 효과를 알아본 외국 선행연구에서도 주로 소수자 차별이나 절도와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비난이나 처벌을 받는 행위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polman 등, 2013). Efron과 Monin의 연구(2010)가 성희롱과 마약소지와 같은 범죄유형을 다루었지만 그들의 연구도 지위 차에 따른 도덕적 면허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아니었다. 한국 연구의 경우 행위자의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에 관한 몇몇 연구들이 업무상 횡령과 인질강도 범죄 시나리오를 이용하였고(최승혁, 김범준, 김시업 2009; 최승혁, 허태균 2013), 공인이 저지른 위법행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을 알아본 연구도 있었다(하사랑, 김민지, 김범준 2013). 하지만 국내연구 같은 경우 도덕적 면허 효과 맥락에서 관찰자에 의해 부여되는 처벌의 심리적 기제 과정을 직접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연구자가 알기로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도덕적 면허 효과의 맥락에서 다양한 범죄유형, 특히 강력범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속한

집단에 따라 도덕적 면허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 2에서 유능성과 따뜻함 수준에서 서로 다른 고정관념 집단을 사전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본 실험의 조작집단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시나리오 속 고정관념 집단들을 연구자가 의도한대로 지각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능성과 따뜻함을 직접 조작하는 등의 다른 실험 절차를 사용하여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2에서는 각 유능성-따뜻함 수준에 해당되는 집단을 사전조사에 의거하여 한 집단만을 선정하여 대상집단으로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포함시켜 반복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본 연구 2에서 집단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의 지각정도에 따라 다르게 유발되는 감정(찬미, 질투, 연민, 경멸)에 따라 관찰자에 의해 부여되는 도덕적 면허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집단고정관념으로 유발되는 감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고정관념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들이 유발되고, 실제로 이러한 감정들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실 상황에서 범죄 시나리오를 조작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실제법정 현장에서 따르고 있는 국민 참여재판 절차를 참고하여 모의재판 상황을 만들어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모의재판 실험을 통해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심원 선정과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처벌을 하는 사법당국의 실제 판결과는 괴리를 보였는데, 실제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판사 또는 검사와 일반인들의 처벌판단에서 서로 다를지 추후 연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의 판결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며 비판받아왔고 판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워왔다(공영호, 2014). 이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일반인들이 실제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공영호, 2014). 실제 배심재판의 경우 재판의 사실관계나 관련 법률들이 어려울수록 배심원의 평결과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공영호, 2016). 재판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상황이 복잡하고 이러한 결정이 부담으로 다가올수록, 증거물과 증언이 명확하지 않거나 뚜렷하게 어느 한쪽에 유리하지 않을수록 배심원들의 판단이 더 어려워지고 법 외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공영호, 2016). 배심원들은 재판과정이 복잡할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편견과 선입관에 의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추론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이러한 추론 방식을 휴리스틱이라고 한다(공영호, 2016). 예를 들어, 어떤 배심원이 소수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보다는 그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증언이나 증거에 더 무게를 두고 부당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공영호, 2016).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높은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사전 교육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법 외적인 요인들이 실제 평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제 3자 도덕적 면허 효과 연구들이 배심원 선별과정이나 교육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길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공영호 (2014).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능력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49-73.
- 공영호 (2016). 판사와 배심원의 결정에 있어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배제방안.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451-473.
-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 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 박희찬, 김혜숙 (2010). 범법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 관련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 27-49.
- 오현철 (2015). 민주주의를 위한 법원개혁과 시민참여. *시민사회와 NGO*, 13(2), 41-82.
- 최승혁, 김범준, 김시업 (2009).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1-17.
- 최승혁, 허태균 (2012). 잘난 사람의 범죄는?: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그 심리기제. *한국사회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127-140.
- 하사랑, 김민지, 김범준 (2013). 공인(公人)의 개념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용서. *한국사회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1), 67-84.
- Barden, J., Rucker, D. D., & Petty, R. E. (2005). "Saying one thing and doing another": Examining the impact of event order on hypocrisy judgments of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1463-147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rger, J., Cohen, B. P., & Zelditch, M., Jr. (1972). Status characteristics and social inter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241-255.
- Berger, J., Fisek, M. H., Norman, R. Z., & Zelditch, M. J. (1977). *Status characteristics and social interaction*. New York, NY: Elsevier.
- Berger, J., Rosenholtz, S. J., & Zelditch, M. (1980). Status organiz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6, 479-508.
- Bowles, H. R., & Gelfand, M. (2010). Status and the evaluation of workplace deviance. *Psychological Science*, 21, 49-54.
- Brown, R. P., Tamborski, M., Wang, X., Barnes, C. D., Mumford, M. D., Connelly, S., & Devenport, L. D. (2011). Moral credentialing and the rationalization of misconduct. *Ethics & Behavior*, 21, 1-12. <http://doi.org/ckbw4c>
- Bradley-Geist, J. C., King, E. B., Skorinko, J., Hebl, M. R., & McKenna, C. (2010). Moral credentialing by association: The importance of choice and relationship clos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11), 1564-1575.
- Cialdini, R. B. (1988). *Influence: Science and practice*. New York, NY: HarperCollins.
- Conway, M., Pizzamiglio, M. T., & Mount, L. (1996). Status, communality, and agency: Implications for stereotypes of gender and oth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25-38.
- Cuddy, A. J., Fiske, S. T., & Glick, P. (2008). Warmth and competence as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perception: The stereotype content model and the BIAS map.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61-149.
- Eaton, J., & Struthers, C. W. (2006). The reduction of psychological aggression across varied interpersonal contexts through repentance and forgiveness. *Aggressive Behavior*, 32, 195-206.
- Effron, D. A., Miller, D. T., & Monin, B. (2012). Inventing racist roads not taken: The licensing

- effect of immoral counterfactual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 916-932.
- Effron, D. A., Cameron, J. S., & Monin, B. (2009). Endorsing Obama licenses favoring whit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590-593.
- Effron, D. A., & Monin, B. (2010). Letting people off the hook: When do good deeds excuse transgress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 1618-1634.
- Eisenberg, N., Fabes, R. A., Miller, P. A., Fultz, J., Shell, R., Mathy, R. M., et al. (1989). Relation of sympathy and distress to prosocial behavior: A multimethod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55-66.
- Fiske, S. T., Cuddy, A. J. C., & Glick, P. (2007).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Cognition: Warmth and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2), 77-83.
- Fiske, S. E., Cuddy, A. C.,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Freeman, N. J. (2006). Socioeconomic status and belief in a just world: Sentencing of criminal defenda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 2379-2394.
- Fragale, A. R., Rosen, B., Xu, C., & Merideth, I. (2009). The higher they are, the harder they fall: The effects of wrongdoer status on observer punishment recommendations and intentionality attribu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8, 53-65.
- Gans, H. J. (1972). The positive functions of povert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275-289.
- Gino, F., & Pierce, L. (2009). Dishonest in the name of equity. *Psychological Science*, 20, 1153-1160.
- Giordano, P. C. (1983). Sanctioning the high-status deviant: An attributional analysi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329-342.
- Greene, M., & Low, K. (2014). Public integrity, private hypocrisy, and the moral licensing effec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2(3), 391-400.
- Harris, L. T., & Fiske, S. T. (2006). Dehumanizing the lowest of the low: Neuroimaging responses to extreme out-groups. *Psychological Science*, 17, 847-853.
- Hollander, E. P. (1958). Conformity, status, and idiosyncrasy credit. *Psychological Review*, 65, 117-127.
- Higgins, T. E., Rholes, W. S., & Jones, C. R. (1977). Category accessibility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2), 141-154.
- Jordan, J., Mullen, E., & Murnighan, J. K. (2009). Maintaining a less-than-perfect moral equilibrium: The paradoxical effects of past moral behavior.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Judd, C. M., James-Hawkins, L., Yzerbyt, V., & Kashima, Y. (2005). Fundamental dimensions of social judgment: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judgments of competence and warm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99-913.
- Khan, U., & Dhar, R. (2006). Licensing effect in consumer choi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3(2), 259-266.
- Krumm, A. J., & Corning, A. F. (2008). Who believes us when we try to conceal our prejudices? The effectiveness of moral credentials with in-groups versus out-group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8(6), 689-709.
- Kouchaki, M. (2011). Vicarious moral licensing: The

- influence of others' past moral actions on mor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702-715.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 Major, B. N.,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93-421.
- Mazar, N., & Zhong, C. (2010). Do green products make us better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21(4), 494-498.
- Merritt, A.C., Effron, D. A., & Monin, B. (2010). Moral self-licensing: When being good frees us to be bad.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4(5), 344-357.
- Miller, D. T., & Effron, D. A. (2010). Psychological license: When it is needed and how it function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115-15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onin, B., & Miller, D. T. (2001). Moral credentials and the expression of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33-43.
- Nisan, M., & Horenczyk, G. (1990). Moral balance: The effect of prior behaviour on decision in moral conflic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1), 29-42.
- Nisan, M. (1991). *The moral balance model: Theory and research extending our understanding of moral choice and devia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pp. 213-249). Hillsdale, NJ: Erlbaum.
- Polman E, Pettit N, Wiesenfeld, B (2013). Effects of wrongdoer status on moral licens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 614-623.
- Ridgeway, C. L. (1987). Nonverbal behavior, dominance, and the basis of status in task grou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683-694.
- Ridgeway, C. (1991). The social construction of status value: Gender and other nominal characteristics. *Social Forces*, 70, 367-386.
- Sande, G. E., Ellard, J. H., & Ross, M. (1986). Effect of arbitrarily assigned status labels on self-perceptions and social perceptions: The mere posi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684-689.
- Schmitt, C. S., & Clark, C. (2006). Sympathy. In J. Stets, & J. H. Turner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emotions* (pp. 467-487). New York: Springer.
- Steele, C. M., Spencer, S. J., & Aronson, J. (2002). Contending with group image: The psychology of stereotype and social identity threat.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4, 379-440.
- Stone, J., Wiegand, A. W., Cooper, J., & Aronson, E. (1997). When exemplification fails: Hypocrisy and the motive for self-integ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54-54.
- Takaku, S. (2001). The effects of apology and perspective taking on interpersonal forgiveness: A dissonance-attribution model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 494-508.
- Tedeschi, J. T., Schlenker, B. R., & Bonoma, T. V. (1971). Cognitive dissonance: Private ratiocination or public spectacle? *American Psychologist*, 26, 685-695.
- Tiedens, L. Z., Ellsworth, P. C., & Mesquita, B. (2000). Stereotypes about sentiments and status: Emotional expectations for high- and low-status group memb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560-574.
- Tiedens, L. Z. (2001). Anger and advancement versus sadness and subjugation: The effect of negative emotion expressions on social status conferral.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86-94.
- Webster, M., Jr., & Driskell, J. E. (1978). Status generalization: A review and some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220-236.
- Webster, M., Jr., & Foschi, M. (1988). Status generalization: New theory and research.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ebster, M., Jr., & Hysom, M. (1998). Creating status characteristic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351-378.
- Weiner, B., Osborne, E., & Rudolph, U. (2011).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reactions to poverty: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giver and the perceived morality of the receiv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199-213.
- Willis, J., & Todorov, A. (2006). First impressions making up your mind after a 100-ms exposure to a face. *Psychological Science*, 17(7), 592-598.
- Zick, A., Pettigrew, T. F., & Wagner, U. (2008). Ethnic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Europe. *Journal of Social Issues*, 64, 233-251.
- Zhong, C. B., Liljenquist, K., & Cain, D. M. (2009). Moral self-regulation: Licensing and compensation. In D. De Cremer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ethical behavior and decision making*. Charlotte, NC: Information Age Publishing.

1 차원고접수 : 2017. 10. 12.

수정원고접수 : 2017. 11. 28.

최종게재결정 : 2017. 12. 04.

## **Third Party Moral Licensing: The Effect of Perception of Wrongdoer's Social Groups on Punitive Judgement by Observer**

**Byeoungchul Cho**

**Hai-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Third Party Moral Licensing Effect(i.e., the effect of allowing actors' current bad behavior to be interpreted favorably in light of high SES or permitted by sympathy for actors with low SES) varied in terms of the type of crime for the observer to judge the extent of punishment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the group (i.e., socioeconomic status and warmth) to which the wrongdoer belong. More specifically, in Study 1, participants evaluated the extent of punishment regarding the wrongdoer after reading criminal act of the target through a script in which the target's SES(high vs. low vs. control) and the type of crime(blatant vs. ambiguous criminal behaviour) was manipulated. The results of Study 1 demonstrated that, in the case of blatant criminal behaviour, the participants made more severe punishment judgement for wrongdoer with high SES than with either low SES or without status information(control). Under ambiguous criminal behaviour condition, the participants gave greater punishment to the target in either the control condition or who was of high SES than to the target with low SES. Also, weak punishment for the wrongdoer with low SES(vs. high SES) was mediated by sympathy for the target only in the context of blatant criminal behaviour. In Study 2, we examined whether the perception of competence and warmth of the wrongdoer in terms of the group to which he belonged to, as well as the type of crime affected punitive judgement by the observer. In addition, we investigated psychological mechanism which may explain these process of punitive judgement. To examine these, we asked the participants to read a scenario describing either blatant or ambiguous criminal behaviour of the target with different levels of competence and warmth, in terms of the groups he belonged to, and afterwards to make punitive judgement. The 3-way anovas obtained significant two-way interactions of Crime Type and Competence dimension, as well as Crime Type and Warmth dimension. When actors committed a blatant criminal act, observers gave more generous punishment to those who were perceived as incompetent than those who were perceived as competent. Generous punishment for incompetent persons occurred through sympathy, repeating the result of Study 1. When actors committed an ambiguous criminal act, observers gave more generous punishments to those who were perceived as warmly than those who were perceived as being cold. Generous punishment for a wrongdoer who were perceived as being warm rather than being cold occurred because the observers more favorably interpreted the ambiguous behavior of the warm target than the cold on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ur society the stereotypes of social groups to which the wrongdoer belong can influence the judgment of jurors participating in the trial.

*Key words* : socioeconomic status, competence, warmth, punitive judgement, moral licensing effect